‘물’ 통해 지구를 공존·돌봄 장소로 상상한다

광주비엔날레 주제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베니스서 발표…부드러운 ‘힘’ 주목
광주정신, 예향 이미지도 재해석
11월까지 베니스서 ‘5·18 특별전’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특별전 ‘꽃 핀 쪽으로’(to where the flowers are blooming)를 오는11월 27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 스파지오 베를렌디스 전시장에서 선보인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세계 최고의 미술축제 베니스비엔날레가 지난 2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니스 스텔로 자르디니 공원과 아르세날레 전시장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를 이끈 세실리아 알레마니 예술감독은 전 세계에서 213명의 작가를 초청, ‘꿈의 우유(The Milk of Dream)’를 주제로 본전시를 꾸몄다. 세계 각국의 미술 관련 단체와 갤러리, 작가들은 오는 11월까지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을 펼쳐보인다.

내년 행사 개최를 앞두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역시 베니스 현지에서 행사 주제를 발표하고, ‘5·18 특별전’을 오픈하는 등 적극적인 ‘광주 알리기’에 나섰다.

◇제 14회 광주비엔날레 주제발표

20일 베니스 현지에서 발표된 제14회 광주비엔날레(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 주제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는 오랜 시간에 걸쳐 스며드는 부드러움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물의 힘’에 주목했다.

이날 주제를 발표한 이숙경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배포된 자료에서 “전환과 회복의 가능성을 가지며 부드럽게 스미는 물이 어떻게 분열과 차이를 포용하는 지 모색할 것”이라며 “물을 은유이자 원동력, 방법으로 삼고 이를 통해 지구를 저항, 공존, 연대와 돌봄의 장소로 상상한다”고 말했다.

주제는 ‘세상에서는 물이 가장 유약하지만, 공력이 아무리 굳세고 강한 것이라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도덕경’78장 ‘유약어수’(柔弱於水)에서 차용했다.

이 감독은 또 “이번 주제를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팬데믹과 심화된 전쟁, 난민 문제부터 악화된 인종차별과 기후 재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예술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광주비엔날레는 도시 광주를 다원성을 내포하는 ‘광주 정신’의 기원이자 근원으로 삼아 광주와 시민들이 시작한 변화의 물결과 그 의미를 현대 미술을 통해 재해석한다. 여기에 서예, 수묵화, 판소리, 칠기를 비롯해 기타 예술 및 공예의 전통에 바탕을 둔 ‘예향’이라는 광주의 역사적 정체성에도 주목한다.

한편 이 감독은 이번 주제 발표에 이어 9월초 1차 참여 작가 리스트와 공간 확정, 내년 초 최종 작가리스트 공개 등을 예정하고 있다.

◇베니스에서 만나는 5·18특별전

5·18민주화운동이 지닌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미학적으로 재조명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전이 베니스에서 시작됐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특별전 ‘꽃 핀 쪽으로’(to where the flowers are blooming)를 오는11월 27일까지 222일간 이탈리아 베니스 스파지오 베를렌디스전시장에서 선보인다. 5·18을 매개로 국제 사회가 공감하고 연대하며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모색해 보는 기획이다.

전시 제목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이후 남겨진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제6장 소제목에서 따왔다.

비엔날레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타이베이, 서울, 쾰른, 광주 옛 국군광주병원 등에서 대규모 특별전을 진행했었다.

이번 베니스 특별전에는 국내외 작가 11명이 참여하며 전시는 5·18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화의 역사를 소개하는 아카이브 섹션과 광주비엔날레 커미션 섹션, 5·18과 민중을 주제로 작업한 작품까지 세 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홍성담, 김창훈, 노순택, 박화연, 배영환, 서다솜, 안창홍, 진 마이어슨 , 최선, 카데르 아티아, 호 추 니엔 등 국내외 작가 11명이 참여해 사진, 설치, 회화 등 다층적인 매체로 광주의 역사, 기억, 트라우마, 전통, 건축 및 정신적 유산 등을 다룬다.

재단은 이번 전시와 연계, 지난 4월초 한강 작가와 로마 사피엔차 쥬세 피나 데 니콜라 교수가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토요 어린이를 위한 공연’

국립광주박물관, 매월 넷째주 토요일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엔 박물관에서 공연도 보고 예술체험도 하고.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2022년 토요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운영한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박물관 대강당에서 펼쳐진다.

첫 공연(23일 오후4시)은 블랙라이트로 만나는 특별한 인형극 ‘종이 아빠’〈사진〉다. 이지은 작가의 동명 그림책 원작 공연으로, 블랙라이트는 암막에서 야광효과를 활용한 공연기법을 말한다. 아빠와 놀고 싶은 주인공 은지의 마음이 담긴 특별한 종이 세상을 블랙라이트 조명을 이용해 다채롭고 이색적인 무대로 선보인다. 다음으로 5월 28일에는 가족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이 펼쳐진다. 이어 연극 ‘특별한 시간 여행: 나는 기와입니다’(6월 25일), 댄스 뮤지컬 ‘판타스틱 앨리스’(7월 23일) 등 다양한 공연이 예정돼 있다.

공연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광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모든 공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문의 062-570-780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올해도 ‘오월 바람’

광주의 아픔, 5·18민중항쟁을 기념해 제작된 발레 작품 ‘오월바람’이 올해도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립발레단 제131회 정기공연 ‘오월바람’〈사진〉이 오는 29일 오후 2시, 7시 30분, 30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오월바람은 5·18민중항쟁 40주년을 맞은 지난 2020년 특별 제작된 발레 작품으로, 초연 당시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립발레단 박경숙 예술감독이 총연출을 맡아 지난해 공연의 다양한 평가를 반영,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관객들을 찾아간다.

특히 이번 공연은 1980년 5월의 광주를 직접 경험한 예술가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1980년 5월 조선대학교 무용과에 재학 중이었던 문병남 안무가가 안무를 맡는다. 역시 비슷한 시기 같은 과에서 활동했던 광주시립발레단 이재승 전 운영실장이 각색에 참여해 광주의 수난을 순도 높게 그려낼 예정이다.

이밖에 제28회 중앙음악콩쿠르 작곡 부문 1위를 수상한 나실인이 작곡자로 참여했으며,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연출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양영은이 무대 연출로 참여한다.

‘오월바람’은 80년 오월, 외부에서 불어오는 억압의 에너지를 뜻하는 바람(wind)과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고 싶었던 광주 시민의 바람(wish)을 다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80년 5월 당시 조선대 무용과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계엄군에 맞서 삶과 죽음을 오가는 항거의 과정을 담았다.

1980년 5월, 시민행렬에 뛰어 든 주인공 촉망받는 무용과 학생 혜연을 중심으로 혜연을 지키기 위해 계엄군에 대항하는 민우, 반대세력인 충환과 향미 등 입체감 있는 캐릭터들이 흥미로운 전개를 이끈다. 주인공 혜연역은 강은혜·공유민이 연기하며 민우 역에는 우건희·박관우가 출연한다.

R석 1만5000원, S석 1만원. 문의 062-522-8716.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즐거운 미술관’ 첫 강의

광주시립미술관, 27일 손영옥 미술평론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 2022 미술관 아카데미 강좌 ‘즐거운 미술관 활용법’ 첫번째 강좌가 27일 오후 2시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에서는 손영옥〈사진〉 미술평론가가 ‘거리로 나온 미술관’을 주제로 강의한다. 손 평론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작해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을 거쳐 멀리 울릉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포진한 거장들의 예술작품을 소개하고 동대문디자인 플라자(DDP), 아모레퍼시픽 사옥, 울릉도의 코스모스 리조트 등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3대 건축 버킷리스트’를 포함해 또 다른 예술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저널리스트이기도 한 손 평론가는 202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미술평론으로 등단했고 미술시장사와 관련한 ‘근대 미술시장 형성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미술시장의 탄생’, ‘아무래도 그림을 사야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미술관’ 등이 있다.

강의는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며 매 강좌가 시작되기 2주전부터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예약가능(60명)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국립남도국악원
23일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 공연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3일 오후 5시에 진악당 무대에서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 공연을 진행한다. 이날 공연은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라는 주제로 국악연주단이 전통음악으로 청산의 푸르름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은 극락왕생 기원의 의미를 담은 기악합주 ‘남도삼현-씻김’을 시작으로 전통성악곡인 가곡을 기악곡화해 빠르게 큰 곡조의 높은음으로 연주하는 대금독주 ‘청성자진한잎’, 액을 예방하기 위한 무용 ‘살풀이’, 부모에 대한 효심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단막극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민초들의 예술집단 남사당패에서 전승돼온 사물놀이 ‘웃다리 농악가락’ 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공연 시작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올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한다. 23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과 전화로 선착순 접수. 무료관람. 문의 061-540-4042.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28일 대각개교절 봉축·나눔행사

원불교 광주전남교구(교구장 이장훈)는 오는 28일 원불교 개교를 한 날인 대각개교절을 각 교당별로 봉축행사와 지역 나눔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교구 봉공회에서는 ‘다함께 다 같이’라는 주제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대각 김치나누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행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원음방송은 소태산 대종사의 큰 깨달음인 ‘대각’을 알리기 위해 경축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좋은 법문으로 청취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자는 취지다. 아울러 광주전남교구 복지기관들은 생명나눔 행사와 함께 음악회를 통해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광주교당, 농성교당, 서광주교당, 중흥교당, 북광주교당 등 각 지역 원불교 교당에서는 개각 개교절을 맞아 은혜에 빛이 온 인류에 나누어지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장훈 교구장은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을 경축하는 대각개교절에 원불교인만의 경축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봉축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문의 062-570-780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